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한 발전구상

정 지 은 · 오 용 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본 연구에서는 예산군의 자원을 활용한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의 발전구상을 제안하고자 함

CONTENTS

1. 문화도시의 정책동향
2. 문화도시 관련 선행사례
3. 예산군 도시 일반 현황 및 문화관광자원 여건
4. 예산군 자원을 활용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발전 방향

요약

- 예산군의 문화재청 공모 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과 '서원향교 활용사업' 선정에 이어, 본 연구는 향후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로 수행됨
- 현재 중앙정부 단위에서 미래사회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핵심요체가 되는 도시단위 문화 사업으로 문화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성격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5년간 최대 37.5억 원 예산(국고 40%, 지방비 60% 매칭)으로 운영됨
- 본 연구에서는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1100주년 문화도시 예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사람', '공간', '활동', '공유'로 구축하여 각 추진 전략을 제시함
 - '사람'에 대한 연구 과제는 '문화시민 활동가 양성', '문화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로 제안함.
 - '공간'에 대한 연구 과제는 '내포문화도시 거점형 문화공간 조성', '내포보부상촌 연계사업 운영'으로 제안함.
 - '활동'에 대한 연구 과제는 '문화도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예산문화공동체 솔루션 연구사업'으로 제안함.
 - '공유'에 대한 연구 과제는 '예산 지명 1100주년 기념 문화자원 DB 구축', '예산문화신문 발간'으로 제안함

1. 정책 추진배경

- 현대사회에서 도시획일화, 물인간적 도시 공간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문화체육관광부, 2016)
 - 사회에서 계층세대·지역 간 도시문제 발생 및 회의적 인식이 팽배하면서 도시적 삶의 관계회복에 있어 문화 매개 역할이 중시됨. 또한 문화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문화도시 필요성이 대두됨
-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함(문화체육관광부, 2018b)
 - 국제회의 의제로서 새로운 시대 사회패러다임에 “도시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의 발현”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기 시작함
 - 도시의 가치생성과 지속가능 기제로 문화가치 기반의 사회경제 생태계 구축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하고, 도시간 사회경제·문화적 협력을 강조하는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¹⁾이 제정되면서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음
- 미래사회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핵심요체가 되는 도시단위 문화 사업으로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문화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됨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됨
-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도시형, 마을형)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짐.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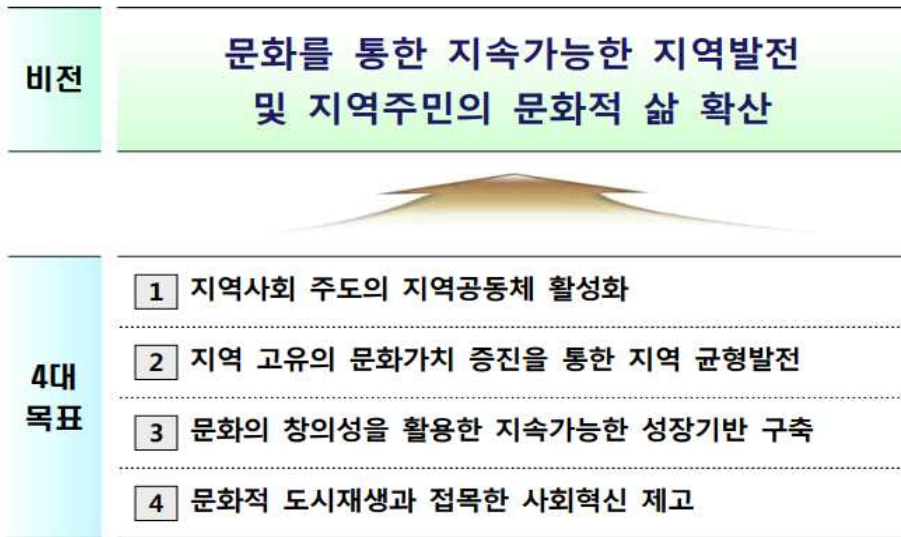
2. 문화도시 사업

1) 문화도시의 개념

- 문화도시란 ‘문화적인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를 의미함(문화체육관광부, 2016)
 - 법적 개념정의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의미함
 - 이론적 개념정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를 의미함

2) 문화도시의 추진 비전 및 방향

-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사업을 이에 근거하여 추진함
 - 문화도시 추진의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정하고,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b,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그림 1]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 문화도시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함. 또한 대규모 시설 조성 및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적 소프트파워(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결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 둘째, 중앙 주도 및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함. 또한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함
 - 문화도시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력에 의한 환경진단,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함
- 매년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5~10개 문화도시 지정을 하며, 단기적으로는 2019년에 5개 내외, 2022년까지 30개 내외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함
 - 문화도시는 광역·시·도 거점별 2~3개 문화도시 육성을 통해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 성공사례 발굴, 문화도시 지정체계 확립을 추진목표로 두고,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전국적 문화도시 지정 및 권역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촉진함

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성격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5년간 최대 37.5억 원 예산(국고 40%, 지방비 60% 매칭)으로 운영됨
 - 2018년 진행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문화마을형) 조성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함
 - 사업은 문화도시형 5년간(연간 7.5억 원), 문화마을형 3년간(연간 2억 원) 지원되며, 2018년에는 총 51개소(문화도시형 20개소, 문화마을형 32개소)가 선정됨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선정 기준으로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인적 발굴, 콘텐츠개발 등 도시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복합) 문화도시 기반 구축사업을 중점으로 봄. 따라서 문화적 요건이 갖추어진 준비된 도시와 잠재역량이 높은 도시 및 주민협의체를 통해 문화 활동을 준비 중이거나 잠재역량이 높은 마을의 사업신청 기본을 요건으로 제시해야 함

[표 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문화마을형) 주요 내용

구분	문화도시	문화마을
지원대상	◦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지원액	◦ 1개 도시당 7.5억원 (국비 3억, 지방비 4.5억)	◦ 1개 마을당 2억원 (국비 0.8억, 지방비 1.2억)
지원기간	5년	3년
사업내용	◦ 시민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 사업 및 전문가 문화기획 프로그램 ◦ 도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휴먼웨어 네트워크, 문화기관 네트워크) ◦ 도시 문화허브 활성화 사업(문화거점) ◦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사업 ◦ 도시재생 및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 ◦ 도시 문화브랜드 사업	◦ 마을단위 문화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마을 축제 운영 및 관리 ◦ 마을 가치자산 활성화 프로그램(역사·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 사업 ◦ 지역단위 마을문화 교류활동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b. 2018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문화마을형) 조성 사업.

- 본 연구에서는 자원을 활용한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의 발전구상을 제안하고자 함

1. 국외 사례

1) 영국 셰필드시 (Sheffield, UK)

- 셰필드시는 인구 55만 명의 중소도시로 영국의 중북부 사우스요크셔(South Yorkshire)주에 위치함. 철강 산업에 의존해 온 전통적인 공업도시였으나 1970년대 후반 철강 및 금속산업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13%까지 오르고, 도시 내 인구 감소와 건축물의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1980년대에 도시 자체가 크게 쇠퇴함(김호일 등, 2016)
 - 도시 자체가 침체됨에 따라 대체할 산업이 요구되었고, 시 정부에서는 당시 문화예술 및 미디어 산업을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여, 세계 최초로 문화산업지구제(Cultural Industries Quarter: CIQ)²⁾를 추진함
- 1988년 시의회 주도로 문화산업지구제(GIQ)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문화와 미디어 기반 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구 공업지역을 문화산업지구로 지정함. 주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산업의 공간으로 확보함
 - 셰필드 역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쇼룸극장>Showroom Cinema)과 영상사업센터(Audio Visual

2) 황폐한 산업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화 및 미디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전략을 수립하고, 구공업지역을 문화산업지구로 지정함(정의홍 등, 2017).

Enterprise Center), 오른쪽에는 국립대중 음악센터(National Popular Music Center), 시내 중심가에 셰필드 할람 대학(Sheffield Hallam University)과 셰필드 독립영화사(Sheffield Independent Film), 사이트 갤러리(Site Gallery) 등이 건립됨

- 셰필드 할람 대학(Sheffield Hallam University)은 문화산업지구제(GIQ)에서 클러스터의 요소인 연구기능과 인력공급, 전문 인력 양성 역할을 수행함. 또한 세계 최초로 건립된 국립대중 음악센터(National Popular Music Center)는 전시시설과 교육프로젝트, 라이브뮤지컬 공연장, 카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문화산업 관련 업체 수가 180개에 이르고, 고용 인력도 2,000명을 넘어섰으며, CIQ 내 업체 중 74%가 10명 이하의 인력을 보유하면서 양질의 소매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소매상점가를 조성함



자료 : 위키피디아(wikipedia.org).

[그림 2] 셰필드 할람대학(좌)과 셰필드 시의 전경(우)

- 영국 셰필드시의 사례는 시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과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활성화하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문화과학기술이 어우러지고, 생산연구소비 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 기반전략 선행사례로 볼 수 있음
 - 도심을 8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전략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개발을 꾀함. 특히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 확충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함
 - 특히 음악 예술인들에게 데모 테이프 및 녹음 등의 제작과 홍보지원, 음반 발매관련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관리 등을 지원하는 다각적 지원 정책을 펼침

2) 일본 가나자와시 (金沢市/Kanazawa, Japan)

-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인구 45만 명의 중소도시로, 일본의 이시카와현에 위치한 현청소재지이며, 과거 일본의 에도 시대 도쿄에 이은 제 2의 도시로, 공예미술자가염색 등의 전통문화가 발전함(김호일 등, 2016)
 - 16세기 말엽 무장 마에다 도시이에가 성을 축조한 이래 약 300여년에 걸쳐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다른 도시들이 급속한 경제발달을 이루는 동안 가나자와시의 도시 성장은 정체되었음
 - 그러나 가나자와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성공했으며, 현재 문화와 경제가 균형을 이루어 낸 내발적 창조 도시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가나자와의 예술창조재단(Kanazawa Art Promo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은 시민들의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나자와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함
 -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와 의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평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재단의 경영과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 아래 문화홀, 아트홀, 노카쿠미술관, 우타쓰야마 공예공방, 유와쿠 창작의 숲, 시민예술촌 등을 조성함
 - 각각의 공간에는 ‘관장’ 과 공방의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디렉터’ 와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브 디렉터’ 가 있으며, 각 시설의 ‘종합 디렉터’ 는 재단 사무국의 통솔 아래 있어 가나자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술창작활동이 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 중 시민예술촌은 방적주식회사가 입주해 있던 공장을 가나자와시가 매입하여 예술촌으로 변모시킨 것이며, 현재 가나자와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간으로 이용됨. 시민예술촌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민예술의 창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연극 음악미술무용 활동의 전반적 제작 및 성과를 발표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시민예술촌은 매년 집계되는 이용자 총계를 통해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 최초로 문을 연 1996년에는 9만 4,288명이던 이용자가 2010년에는 16만 1,325명으로 약 2배 증가함



자료 :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 홈페이지(artvillage.gr.jp).

[그림 3]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 전경

- 일본 가나자와시의 사례는 도시 문화자원을 활용해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현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본 내 어느 지역보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도시로 손꼽히는 가나자와시는 전통문화예술의 맥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있음. 무엇보다 조화로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20여 년 전부터 역사 건조물과 문화재 보전을 통해 도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특히 시민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2. 국내 사례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사업은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강화 및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시행되는 사업임(조광호 등, 2016)

- 거점지역문화도시 사업은 중앙주도형 및 지방중심-중앙지원형으로 5개 문화도시가 조성됨. 중앙주도형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2004~2023)’ 이 있으며, 지방중심-중앙지원형은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2004~2011)’,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2006~2035)’,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2007~2016)’,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2009~2030)’ 이 있음
- 2003년 출발한 참여정부는 문화중심도시 및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국가정책과제로 공표하면서, 광주·부산·경·가·전주를 지역거점문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공주·부여를 지역거점문화도시로 추가 지정함.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특별법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외 2011년 완료된 부산영상문화도시와 함께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됨

	중앙주도형	지역중심-중앙지원형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사업기간	2004~2023년 (20년)	2004~2011년 (8년)	2007~2026년 (20년)	2006~2035년 (30년)	2009~2033년 (22년)
사업비	5.3조원	1,600억원	1.7조원	3조 3,533억원	1조 2천억원
사업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11개 사업구성	영상문화도시조성을 위한 44개 실행과제와 사업	한국전통문화메카도시 전주를 만드는 사업	신라천년역사문화도시 경주를 만드는 사업	백제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복원을 목표
추진현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대 권역을 중심으로 문화적도시환경 조성	영화의전당 건립 아시아영화허브도시로서 위상, 장소성 갖추는 사업	전주한옥마을 중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14년 약 500만명 관광	월정교 복원사업 추진 유적지 경관조명 교촌한옥마을 조성 등	유적 정비·복원 도시경관 및 테마거리 백제유적관광환경 개선
도시경관					

자료 : 정지은, 2018. 도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환황해권 중심 <내포문화도시> 조성 발표자료. 충남연구원.

[그림 4] 거점형 문화도시 추진 현황

2) 충남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 사업으로, 충남에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9개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2019년부터 추진되는 홍성군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최대 3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시민·청소년 인문교육, 문화도시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음

[표 2] 충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현황(2018년 12월 기준)

유형	지자체	사업기간	주요내용
문화도시	천안	2015~2019	◦ 지역 문화콘텐츠의 창조적 산업화, 창의문화 인력 양성
문화도시	서산	2016~2020	◦ 박첨지놀이, 전통굿 등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문화도시	홍성	2019-2023	◦ 사람을 키우고 품으며 모이게 하는 인본문화도시
문화마을	서천	2018-2020	◦ 장항 6080골목길 프로젝트
문화마을	공주	2014-2016	◦ 상신 전통 문화마을
문화마을	부여	2014-2016	◦ 근대문화거리 규암 문화마을
문화마을	당진	2015-2017	◦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마을
문화마을	홍성	2015-2017	◦ 고암 이응노 예술마을
문화마을	예산	2015-2017	◦ 의좋은형제 마을

3. 시사점

● 도시의 정체성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의 발굴

- 지역의 정체성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형태로 문화도시 건설에 반영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사업은 도시의 자원을 활용하여, 각 지역 거점별 도시의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특히 전주의 한옥마을에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관광객이 약 783만 9,426명 다녀가면서, 국내외 관광 발전을 도모함(전북일보, 2018.12.25.)
-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삶과 기억, 생활양식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의 발굴이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특히 예산이라는 지명이 시작된 지 1100

주년이 되는 2019년을 지역 문화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진행되는 예산군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에,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정체성(비전)을 ‘1100주년 문화도시 예산’으로 제안하고자 함

● 사람이 함께 활동하고 참여하는 문화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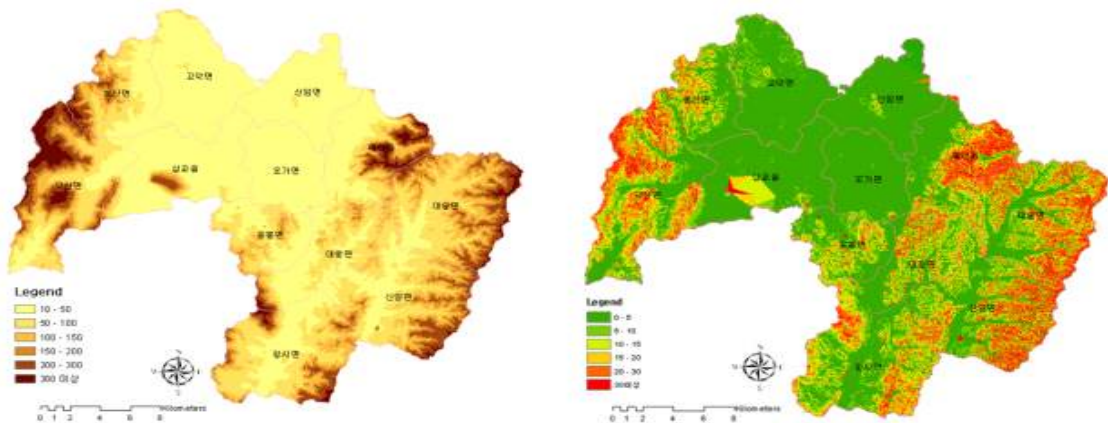
- 영국 셰필드시는 정부의 주도하에 대학, 관련 산업체 등의 민간기구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구생산소비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 가나자와시 또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여 시민 예술촌을 형성하였음(김호일 등, 2016)
- 예산군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이 함께 활동하고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문화 도시는 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이 충돌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때 도시의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군의 가장 밀접한 민·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03

예산군 도시 일반 현황 및 문화관광자원 여건

1. 자연환경

- 예산군의 총면적은 2012년 기준 542.31km²이며, 행정구역은 2읍 10면으로 이루어짐(김양중 등, 2013)
 - 예산군의 동쪽으로는 공주시, 서쪽은 홍성군과 서산시, 남쪽은 청양군, 북쪽은 아산시와 당진시가 인접해있음
 - 예산군 내 표고는 50m 이하의 평탄지 및 구릉지가 전체면적의 46.9%(254.35km²)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사도는 5° 미만의 개발 잠재성이 높은 토지는 약 53.7%, 20° 이상의 개발 불가능 지역이 16.4%로 나타남



자료 : 오혜정 등, 2013.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충청남도 예산군.

[그림 5] 표고분석도(좌)와 경사분석도(우)

2. 인문경제현황

- 예산군의 인구현황은 2018년 11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82,348명으로, 예산읍에 거주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35,594명이 거주하며, 43.2%의 분포를 보임
 - 예산군의 남성 인구수가 41,705명, 여성 인구수가 40,643명으로 남녀 비율이 1.01 성비로 나타남. 2017년 말 예산군의 인구수가 82,494명에서 2018년 82,348명으로 약 146명이 감소함
 - 예산군의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 88,144명에서 2017년 80,338명으로 감소함. 예산군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한 자연적 증가분의 감소와 인구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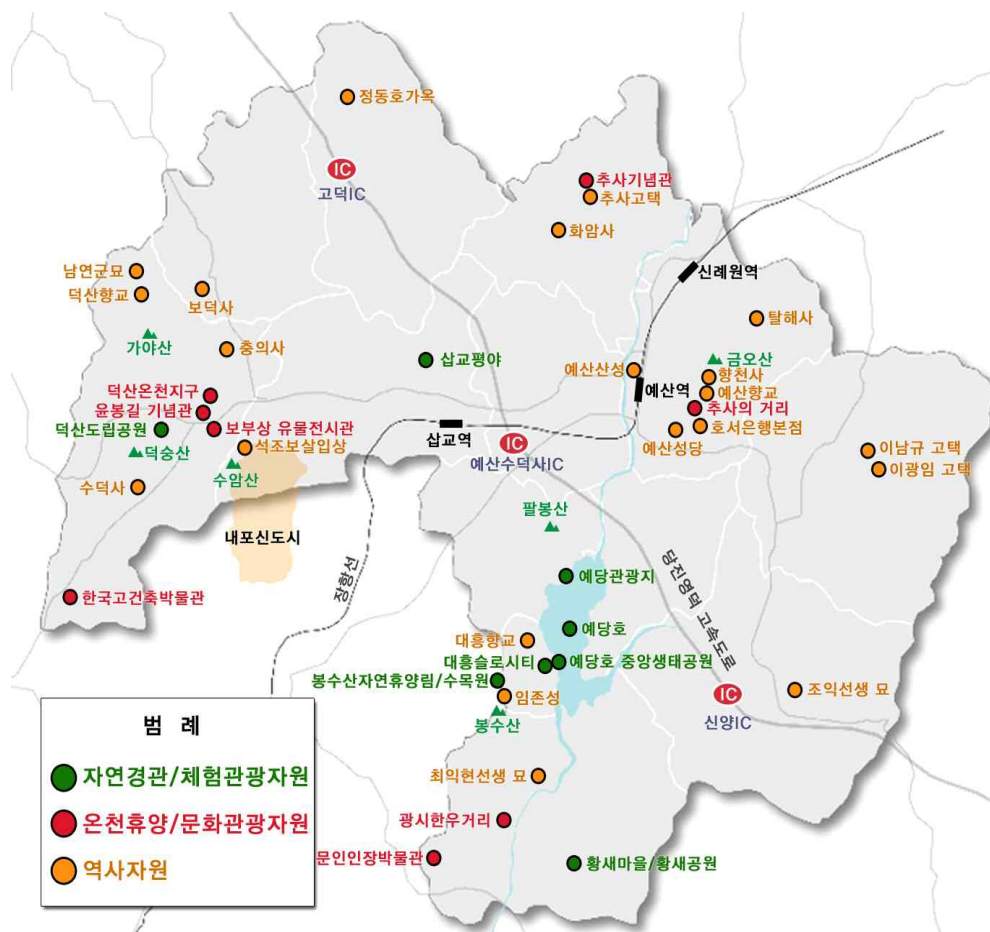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kr)

[그림 6] 예산군의 인구수 변화추이

- 2016년 기준 예산군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각각 6,871개소, 30,507명이며, 이 중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 24.8%(1,703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도매 및 소매업(1,703개)’ 과 ‘숙박 및 음식점업(1,534개)’ 이 전체 사업체 중에서 47.1%를 차지함. 종사자수는 ‘제조업(8,891명)’ 이 29.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3,568명)’ 이 11.7%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 , ‘제조업’ 이 예산 지역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함

3. 문화관광자원 여건

-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는 예산군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인 예당호와 덕산도립공원(가야산, 덕숭산), 봉수산, 황새마을, 삼교평야와 대흥슬로시티로 대표되는 체험관광자원을 보유함(이인배, 2016)
 - 역사자원으로는 남연군묘, 수덕사, 예산산성, 임존성, 추사고택과 각종 사찰 및 향교, 고택 등이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함
 - 문화관광자원으로는 보부상 유물전시관, 윤봉길 기념관, 추사기념관 등 역사와 관련한 문화자원이 존재하며, 광시한우거리 및 추사의 거리 등 문화적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이용됨



자료 : 오희산 등, 2016.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충청남도 예산군.

[그림 7] 예산군의 문화관광자원 현황도

[표 3] 예산군의 문화관광자원

구분	명칭	위치	주요내용
온천휴양/ 문화관광자 원	덕산온천지구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 3,091,000㎡ 예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온천지구내에 온천장, 호텔, 편의시설로 구성
	운봉길기념관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건립 영상복합모형과 대형사진·그림 등을 이용해 15가지 내용으로 구성
	보부상 유물전시관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관련 유품 전시 주요소장품 : 직인, 완문, 절목, 청사초롱 등
	한국고건축박 물관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야외전시관, 3D영상관
	추사기념관	예산군 신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건립 상설전시실, 영상실, 체험실, 수장고 및 기획전시실 등
	추사의 거리	예산군 예산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시가지 활성화 사업(320m구간)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사업, 분수광장, 다목적 광장 등
	광시한우거리	예산군 광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시면 소재지에 정육점 30여개 밀집
	문인인장박물 관	예산군 광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설립, 우리나라 유일의 인장테마 박물관
역사자원	수덕사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 제49호로 지정
	남연군묘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정기념물 제 80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
	덕산향교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기념물 제137호 조선 인조때(재위 1623~1649) 세운 것으로 추정
	보덕사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45호인 극락전과 제183호인 석등 입지
	충의사	예산군 덕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헌 윤봉길 의사 위패가 봉안된 사당 사적 제229호
	석조보살입상	예산군 삽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물 제508호 수암산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
	대흥향교	예산군 대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기념물 제136호 조선 태종5년(1405)에 건립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레 약 2.4km로 자연지형을 이용한 테뫼식 석축
	최익현선생 묘	예산군 광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기념물 제29호 조선말기 애국지사 최익현의 묘
	조익선생 묘	예산군 신양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문화재자료 제284호
	정동호 가옥	예산군 고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민속자료 제191호

(표 계속)

구 분	명 칭	위 치	주요내용
역사자원	추사고택	예산군 신암면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 ◦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
	화암사	예산군 신암면	◦ 추사가 어려서부터 드나들며 불교와 인연을 다진 곳
	예산산성	예산군 예산읍	◦ 삼국시대 성터 (둘레 655m, 높이 2.4m) ◦ 충남기념물 제 30호
	탈해사	예산군 예산읍	◦ 향천사의 부속 암자로 조선시대 명운스님이 법당을 창건
	향천사	예산군 예산읍	◦ 656년 의각대사가 창건
	예산향교	예산군 예산읍	◦ 충청남도 기념물 제138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건립
	호서은행본점	예산군 예산읍	◦ 충청남도 기념물 제66호 ◦ 민족 금융기관이었던 호서은행 본점 건물
	예산성당	예산군 예산읍	◦ 충청남도 기념물 제164호 ◦ 근대 성당 건축물
	이남규 고택	예산군 대술면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68호 ◦ 구한말 의사이자 항일 운동가인 수당 이남규 선생의 본가
	이광임 고택	예산군 대술면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 조선 순조때 건립하였으며 당시 중류 양반의 생활 및 건축양식으로 지어짐

자료 : 오희산 등, 2016.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관내 문화시설은 2014년 기준, 총 11개소로 충청남도(188개소)의 5.9%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예산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예산군에서 충족되지 않는 문화수요는 인근 문화시설을 갖춘 천안·홍성·아산 지역 등으로 유출되고 있어, 유아부터 장년,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군민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예산군 관내에 필요함

[표 5] 예산군 문화기반시설 현황(2014년 기준)

구분	합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 관	시민회 관	문화원	공연시 설	영화관
충청남도	188	57	45	8	15	2	16	31	14
예산군	11	3	4	1	1	-	1	1	-

자료 : 오희산 등, 2016.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의 관광자원별 현황으로, 예산 8경은 수덕사, 예산사과, 삽교평야, 임존성, 예당호, 가야산, 충의사, 추사고택이 해당되며, 예산 5미는 한우갈비, 예당붕어찜, 수덕사 산채정식, 삽다리 곱창, 민물어죽이 해당됨(이인배, 2016)
 - 특히 예당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저수지 낚시터이며,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개발되었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예산군의 중요한 용수 공급지임
 - 가야산은 덕산도립공원의 일부를 이루는 차령산맥의 줄기로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이 있으며, 주요 관광자원인 덕산온천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충의사는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매헌문화제가 개최되는 사적지임
 - 추사고택은 예산군을 대표하는 인물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고택이며,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이 위치함
- 예산군은 지역주민의 소통과 단합, 그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축제 및 행사(달집축제, 예당 낚시대회, 벚꽃마라톤대회,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황토사과 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등)를 개최함
 - 예산군에는 예산 황토사과 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대표축제로 육성하였던 예산옛이야기축제가 폐지됨에 따라 예산군의 새로운 대표축제 발굴이 시급한 실정임

[표 6] 예산군의 축제 및 행사

축제명	개최시기	개최장소	행사내용
달집축제	정월대보름	무한천 둔치공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등
예당낚시대회	3월	광시면 일원	예산군수배 예당 전국 낚시대회 등
벚꽃마라톤대회	4월	예산공설운동장	예산 벚꽃 전국 마라톤 대회
윤봉길 문화축제	4월	충의사	윤의사 일대기 체험,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등
예산황토사과축제	11월 (격년)	무한천 둔치공원	사과 따기 체험 행사, 사과 품평회, 사과아가씨 선발대회 등
의좋은형제 축제	10월	의좋은형제 공원	경연대회, 공연, 벚 가마나누기 등
추사 추모 전국휘호대회	10월	추사고택 일원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등

자료 : 오희산 등. 2016.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충청남도 예산군.

4. 문화재청 공모 사업

- 2018년 문화재청 공모 사업 중 ‘생생문화재사업’ 과 ‘서원 향교 활용사업’ 에 예산군은 대목장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예산향교 프로그램이 선정됨
 - 생생문화재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며, 향교·서원 문화재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하던 공간인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되는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연합뉴스, 2018.06.25.)
 -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우리의 전통건축을 체험하라’ 대목장 생생체험 프로그램은 중요무형 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된 대목장을 주제로 기획됨. 초·중·고·고교생, 대학생, 성인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전통건축을 체험하라’ 대목장 생생체험은 ▶1박2일 대목장캠프 ▶찾아가는 대목장 고건축교실 ▶대목장 인형극장 ‘대목장의 삶’ ▶기획전시 ‘대목장 생생전시회’ ▶세계유산으로 만나는 인류의 고건축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유산 어플제작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환경일보, 2018.01.30.)
 -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는 예산향교에서는 ‘예산향교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를 스케치하다!’ 를 주제로 한 웰빙 케이터링 교육을 통해 예산향교가 인생 이모작 학교로 변화됨



자료 : 환경일보(2018.01.30.). “예산군, 지역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림 8] 예산군의 문화재청 공모사업 프로그램

04

예산군 자원을 활용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발전 방향

1.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발전 전략

-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1100주년 문화도시 예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사람’, ‘공간’, ‘활동’, ‘공유’로 구축하여 각 추진 전략을 제시함
 - 내포신도시에서 ‘도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역사문화도시 내포조성’ 관련 문화도시 사업을 구상 중이기에, 이와 연계하는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발전 전략

2. 예산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발전 방안

1) 사람 : 시민이 스스로 만드는 문화도시

● 문화시민 활동가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충남의 문화시민 활동가(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천안문화재단과 충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마을 단위에서 직접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예산군의 문화시민 활동가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선행 사례] 지역의 발전방향을 시민 스스로 설정하여, 계획 수립과 진행해가는 실천적 사업인 ‘도시재생대학교’ 운영 과정을 꼽을 수 있음.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의 도시재생대학교는 연2회, 10주 교육과정, 현재 10기가 진행 중으로 기수별 참가인원이 약 300여명으로 이루어짐
- [사업 내용] 특히 예산군 문화와 관련된 자원에 대해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문화시민 활동가 양성과정은 단기부터 장기까지 차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 목표는 시민의 역량강화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문화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 [배경 및 필요성] 예산군의 인구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층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특히 노인층 인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함
- [선행 사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 [사업 내용] 각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노인층 인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은 직접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함. 특히 시민들 요구와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특화 교육과정(예: 작은도서관, 마을공방, 문화예술창업 등)으로 개설되어야 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c.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그림 1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2) 공간 : 지속가능한 문화공간 조성

● 내포문화도시 거점형 문화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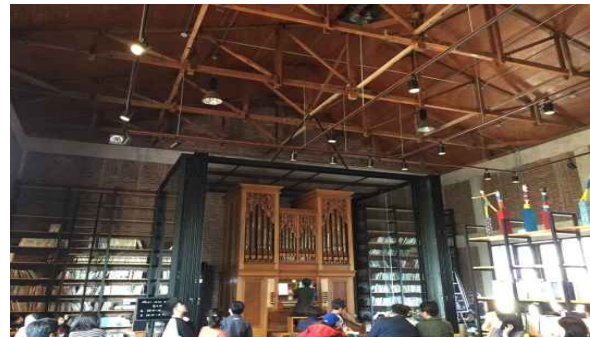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2018 충남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예산군 시민의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가 ‘시간 부족(33.6%)’, ‘경제적 부담(18.6%)’, ‘여가시설 부족(14.1%)’으로 꼽혔음. 또한 내포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거점형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예산군 내 내포문화도시 거점형 문화공간을 조성함

향후 내포문화도시 거점형 문화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 [선행 사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업무계획에서는 ‘문화적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적 재생 및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문화적 공간+문화콘텐츠+문화 전문인력’을 융합하여 삶의 질제고, 공동체 회복 등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종합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사업 내용] 예산군 내 쇠퇴한 공간(유헴 산업시설, 점포 등)의 문화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 공간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간의 활용 할 때, 용도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내포문화도시 거점 역할 및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내포보부상촌 연계사업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내포보부상촌 사업’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6만 1040m²에 2019년까지 447억 원을 들여 보부상촌을 조성하여, 전국 보부상 문화의 중심인 예산을 거점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임. 따라서 내포보부상촌과 공간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선행 사례] 예산군은 2018년 9월 29일 예산역 주차장 일대에 ‘한가위 달빛잔치’를 개최함. ‘내포보부상촌 밤마실 문화저잣거리’의 네 번째 프로그램인 ‘한가위 달빛잔치’에서는 길쌈놀이, 성악 공연, 라틴 뮤직 콘서트 등 평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임(중부매일, 2018.09.27.)
- [사업 내용] 내포보부상촌 사업은 예산을 대표하는 문화 프로그램이기에, 조성된 공간을 바탕으로 내포보부상촌 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d.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2018년도 업무계획).

[그림 11] 광역 업사이클링센터(유희 쓰레기소각장 재생)와 담양 예술로 남송창고(폐양곡 창고 재생)

3) 활동 :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거버넌스 구축

● 문화도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도시문화를 만드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자발적 커뮤니티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특히 ‘문화도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내포신도시의 ‘도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역사문화도시 내포조성’에서도 제안된 사업으로, 이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선행 사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

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을 의미함. 대구의 ‘안심팩토리’는 대구에 터전을 삼은 먹거리 사회적경제 기업 세 곳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임

- [사업 내용] 도시를 살릴 잠재적 산업군을 커뮤니티 활성화로 보아야 하며, 이전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 공장 유치 같은 경우가 큰 몫을 차지했으나, 예산군의 문화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도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예산문화 공동체 솔루션 연구사업

- [배경 및 필요성]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예산문화 공동체 솔루션 연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본 사업 또한 내포신도시의 ‘도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역사문화도시 내포조성’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이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선행 사례] 2018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 독립도시 천안’을 강조하고 있음
- [사업 내용] 도시 내 분야별 문화 관련 다양한 그룹을 두어 도출된 과제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따라서 시민 제안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문화 공동체를 구성하고, 향후 도시의 문제에 집중하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연구 사업으로 나아가야 함



자료 : 한겨레. 2018.12.16..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경제...‘커뮤니티 비즈니스’ 뜬다’.

[그림 12]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4) 공유 : 공유문화가 조성되는 도시

● 예산 지명 1100주년 기념 문화자원 DB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예산이라는 지명이 시작된 지 1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예산군의 문화자원 조사 및 DB 구축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선행 사례] 2018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북(남원시)은 ‘문화도시·문화마을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문화자원 조사’를 각 14개의 사군에 각각 실시함(장세길 등, 2013)
- [사업 내용] 예산군 내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록화하는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예산문화신문 발간

- [배경 및 필요성] 도시 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소식들을 담고 있는 예산문화신문의 발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선행 사례] 부산 영도구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에서는 2018년 11월 마을신문 ‘흰’을 창간하면서, 마을공동체 주민이 힘을 모아 만든 20쪽 남짓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음. 특히 ‘여울기자단’ 3명은 마을 토박이 초등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흰’은 앞으로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발행될 예정이며, 주민으로 이루어진 자립 작가와 공동체 주민 위주로 실문을 제작할 예정임
- [사업 내용] 도시 내 역사, 문화, 미래 이야기 채록, 마을 이야기 발간, 장소자산 발굴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문화신문 발간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문화신문 발간을 위한 교육 과정도 선행되어야 함



자료 : 국제신문. 2018.12.24.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알리는 초등 3인방 마을신문 기자’.

[그림 13]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알리는 초등 3인방 기자

참 고 자 료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 홈페이지. artvillage.gr.jp.

국제신문(2018.12.24.).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알리는 초등 3인방 마을신문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4.99002010414>에서 2018.12.26. 인출

김양중 등. 2013. 예산군 추모공원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예산군공공시설사업소.

김호일 등. 2016.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청주 문화도시 마스터 플랜 2016~2020. 청주시청.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요약본.

_____. 2018a. 2018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문화마을형) 조성 사업.

_____. 2018b.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_____. 2018c.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_____. 2018d.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2018년도 업무계획).

연합뉴스(2018.06.25.).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개 분야 공모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5046300005?input=1195m>에서 2018.12.26. 인출

오혜정 등. 2013.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충청남도 예산군.

오희산 등. 2016.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충청남도 예산군.

위키피디아. wikipedia.org.

이인배. 2016.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의 방향 및 주요기념사업 발굴 연구.

장세길 등. 2013. 문화도시·문화마을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문화자원 조사.

전북일보(2018.12.25.). 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효과 ‘톡톡’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89>에서 2018.12.26. 인

출

정의홍 등. 2017. 천안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정지은. 2018. 도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환황해권 중심 〈내포문화도시〉 조성 발표자료. 충남 연구원.

조광호 등. 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중부매일(2018.09.27.).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밤마실 문화저잣거리'한가위 달빛잔치 개최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328>에서 2018.12.26.
인출

충청남도. 2018 충남 사회지표.

통계청. kosis.kr.

한겨레(2018.12.16.).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뜬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4627.html에서
2018.12.26. 인출

환경일보(2018.01.30.). 예산군, 지역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43>에서 2018.12.26.
인출